

악인 주단테 몰락할지 관심 속 '폭주 기관차' 종착역은?

SBS '펜트하우스3' 첫 방송 시청률 16.9%~19.5%

유진·김소연·이지아 얹히고 설킨 복수극 어떻게 될지 주목
배우들 익살스런 연기 볼 만...시즌2·3 스코어 앨범 발매

김순옥 작가와 주동민 PD가 운영하는 '폭주 기관차'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까. 드디어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 '김순옥 표 폭주 기관차'가 마지막 운행 시작부터 위용을 과시했다. 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부터 약 90분간 방송된 SBS TV 금요 드라마 '펜트하우스3'의 첫 방송 시청률은 16.9%~19.5%를 기록했다.

이는 모든 채널, 모든 프로그램을 압도하는 시청률이자 '펜트하우스' 자체로도 시즌 1 첫 회(6.7%~9.1%), 시즌 2 첫 회(16.1%~19.1%)를 모두 뛰어넘은 성적이다.

첫 방송에서는 구치소 속 권력구조 안에서 사회에서와는 완전히 뒤바뀐 서열로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과 함께 로건 리(박은석 분) 차 폭발사고의 전말이 그려졌다. 설 새 없는 전개 속도에 발맞추 리드미컬한 연출, 배우들의 익살스러운 연기 또한 작품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특히 김소연은 백상예술대상 여우주연상의 주인공답게 구치소 내에서 환각 증세를 보이는 천서진을 소름 돋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시즌에서는 오윤희(유진 분), 천서진(김

소연), 심수련(이지아)의 얹히고설킨 복수극이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지 기대를 모은다. 특히 악(惡) 중의 악인 주단테(엄기준)가 과연 처참하게 몰락할지도 모두의 관심사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인물들의 과거,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아역들의 입시전쟁 등이 정신없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진은 최근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시즌 3에도 뒷맛을 다 치르지 못한 분들이 나와서 활개를 치니 이 상황이 슬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짝잡하기도 하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아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즌3에서는 윤희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라며 "(시청자분들께) 사이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이번 작품으로 '국민 약녀'에 등극한 김소연은 "시즌3 대본을 처음 봤을 때 나 역시 '천서진, 어디까지 갈 거야'라는 생각을 했다. 천서진이 악행을 얼마나 더 해나갈지 궁금해하며 연기하고 있다. 여러분도 궁금하셨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지난 4일 시작한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3'이 시청률 16.9%~19.5%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 말미 나예교에서 심수련으로 돌아온 이지아는 "시즌3에는 더 충격적인 엔딩이 기다리지 않을까 나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며 "저희 드라마의 결말을 많은 분께서 유추해주시는데, 저희는 더 큰 배신감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정말 시원하게 한 번 아작을 내보겠다"며 웃었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갖은 악행을 서슴지 않는 주단테 역으로 시청자들의 '욕망이'가 됐다는 엄기준은 "'국민 XXX'가 될 수밖에 없었던 대본이었다. 물론 주단테로서는 전혀 죄책감이 없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제 키스신도 없어서 훌가분한 마음으로 시즌3를 촬영하고 있다"는 그는 "끝날 때까지 열심히

히 더 많은 악행을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펜트하우스' 시리즈가 지금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난 만큼 배우들은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작품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하윤철 역으로 크게 주목받은 윤종훈은 "어떤 작품에서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유진·김소연 씨와 시즌 3를 촬영하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만가지 감정이 다 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유진은 "처음 해보는 역할이었기에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던 기회였다"라고, 이지아는 "심수련은 저에게 매우 큰 모험이었다"고 말했다. 아규진 역으로 개성있는 연기를 선보인 오봉태규는 "단 한 장면도 허투루 찍은 게 없다. 이만큼까지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시즌 1 때 시청률 공약으로 출연진이 다 같이 봉사하기로 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다"며 "시즌 3가 끝날 때쯤 상황이 잘 해결돼서 못 지켰던 약속을 다 같이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즌 2·3의 스코어 앨범이 발매됐다. 김준석·정세린 음악감독과 무비클로저 팀이 참여한 이번 앨범에는 시즌 2 주요 장면마다 삽입된 극의 긴장감을 극대화한 곡부터 시즌 3를 채울 노래까지 수록됐다. /연합뉴스

마마무 "우리의 과거·현재·다가올 날들 담았어요"

가수 데뷔 후 7년만에 첫 발라드 앨범 'WAW'

마마무(사진)는 '믿음' (믿고 듣는 마마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가창력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걸그룹이다. 그러나 발라드를 앨범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적은 없었다.

이들이 지난 2일 발표한 새 미니앨범 'WAW'는 그래서 주목된다. 데뷔 7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틀곡 '웨어 아 위 나우' (Where Are We Now)를 비롯해 전곡을 발라드 트랙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마마무는 최근 소속사 RBW를 통해 "전곡 발라드 앨범을 내는 것은 처음"이라며 "그동안 끊임없이 성장해온 하모니와 '케미스트리'를 조금 더 성숙한 느낌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발매 소감을 밝혔다.

"아무래도 발라드 앨범이다 보니 각자의 보컬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서로의 목소리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합이 잘 어우러지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며 팬덤 '무무'에게 "마마무표 여름 발라드"를 즐겁게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앨범의 주제도 의미가 깊다. 많은 아이돌 그룹들에 번곡점이 되는 데뷔 7년 차를 맞은 이들은 이번 앨범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한다. /연합뉴스

마마무는 "(타이틀곡) '웨어 아 위 나우'는 긴 여정 중에 함께하고 있는 서로를 향해 '우린 어디쯤 왔을까?' 묻는 (노래)라며 "우리의 지난 과거, 현재, 그리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전했다.

"마마무만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가사와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추천해요."

타이틀곡 가사 구절인 '기나긴 여행 중 어느 날'을 언급하며 "이 여행을 멤버들과, 그리고 팬 무무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 마마무로 걸어난 여행의 시간 동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다"고도 했다.

마마무는 앨범을 준비하며 다큐멘터리 촬영과 콘서트 준비도 병행했다.

이들은 "다큐멘터리는 꾸준히 제작하고 있어 멀지 않은 시기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콘서트는 현재 모두가 안전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 중이다. 올여름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면 멋지게 준비해서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분노의 질주' 개봉 19일만에 200만 돌파

인기 액션 시리즈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가 올해 세 번째로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배급사 유니버설 픽처스는 '분노의 질주'가 6일 오전 8시 55분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누적 관객 200만84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개봉 이후 19일만으로,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앞서 '소울'은 개봉 54일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올해 최고 흥행작인 '귀멸의 칼날' (209만명)과 '소울' (204만명)의 흥행 기록도 곧 제칠 전망이다. /연합뉴스



박진영과 싸이 손잡은 '라우드' 시청률 9%대

JYP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박진영과 피네이션의 수장 싸이가 나선 SBS TV 새 오디션 프로그램 '라우드'가 시작부터 9%대 시청률을 기록했다.

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방송한 '라우드' 첫 방송 시청률은 3.9%~5.5%~9.0%로 집계됐다. 순간 최고는 11.3%(수도권)까지 뛰어올랐고, 주요 타깃인 20~49세 시청률은 2.6%를 기록해 동시간대 예능 1위를 차지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박진영과 싸이의 만남, 그리고 '라우드 센터'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싸이는 "박진영과 내가 뭔가를 같이 하는 게 처음"이라며 설렘을 표했고, 박진영 역시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운 것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1라운드에서는 '빙판 위의 아이돌' 15세 이동현이 특별한 자작시를 선보였고, 이어 은휘가 자작곡과 자작랩을 연이어 자랑했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